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숭고한 애국사업

정영섭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단행본 8페이지)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은 토지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강하천정리와 산림조성을 잘하여 토지류실을 막고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늘이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국토관리사상을 충정으로 받들어나가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이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조국의 한치의 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조국의 한치의 땅은 별로 사람들의 눈에 크게 안겨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한치, 한치의 땅이 합쳐져 나라를 이룬다.

우리 인민은 해방전 나라가 없는 탓에 한치의 땅을 얻지 못하여 산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인간이하의 수난과 멸시를 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신 후에야 비로소 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피로써 쟁취한 한치의 땅이 그렇게 귀중하기에 해방후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한치의 땅도 묵이지 말라고,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인민군용사들에게 한치의 땅도 적들에게 내여주지 말라고 뜨겁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불비쏟아지는 포연속에서도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어 식량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인민군용사들은 한치의 땅을 사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바쳤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을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면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잘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큰 규모의 규격포전으로, 드넓은 간척지를 옥토로 전변시켜놓으시였다.

그러므로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치의 땅을 위하여 바치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된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이 숭고한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결심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사업으로 되기때문이다.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면 총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바로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만일 장마철에 무더기비가 내려 큰 물이 나면서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놓지 않으면 언제가든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수 없으며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없게 된다.

토지는 농업의 기본생산수단으로서 토

지가 없이는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수 없으며 그러자면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이 모든것은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것이 이 땅에 태를 묻고 조국산천의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떨쳐나서야 할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현시기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한치의 땅이라도 류실되는 현상을 철저히 막고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더 늘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짜고들어 진행하는것이다.

한치의 땅이라도 류실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서는 장마철피해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의 기후는 매해 4~6월까지 계속 가물고 7~8월에는 장마가 지는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아열대고기압이 우리 나라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온도가 높고 습한 공기가 밀려오면서 무더기비가 내려 큰물이 나는것과 관계된다.

장마철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해서는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강하천정리사업과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가 심하고 토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로부터 먼저 진행하며 강바닥파기, 강물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지대적조건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장마철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하여서는 산림조성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 나무들의 뿌리가 토양을 잡아주기때문에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산사태로부터 토지를 보호할수 있다.

새땅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더 늘이기 위한 사업도 잘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새땅예비를 찾아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더 늘이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우리 나라에는 부침땅으로 쓸수 있는 새땅예비가 산간지대와 벌방지대에도 있고 강하천을 정리하고 물웅덩이를 메워도 있으며 철길주변과 북부고산지대와 덕지대를 일구어도 나을수 있다.

새땅을 찾는다고 하여 산림자원을 못쓰게 만들거나 산사태가 일어날수 있는 대상들을 절대로 개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새땅예비를 적극 찾아내는것과 함께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은 부침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간석지를 개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방파제를 쌓기 쉽고 인차 부침땅으로 쓸수 있는 간석지부터 개간하고 내부망공사를 따라세워 부침땅으로 리용하는것이다.

간석지개간사업은 어렵고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이므로 국가적인 관심을 돌리고 자동차와 연유, 세멘트를 비롯한 설비,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평의 부침땅이라도 더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농촌들의 구석진 곳에 이르기까지 토지정리를 다 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몸소 토지정리의 새 역사를 펼치시고 전국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번듯하게 정리하여 우리들에게 물려주시였다.

지방들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빼기논밭들까지 번듯하게 정리하고 부침땅면적을 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모든 도, 시, 군들과 협동농장들에서는 정리하지 않은 빼기논밭들을 정확히 조사

장악하고 정리할 날자와 로력, 트랙토르와 연유를 정확히 타산하며 자체의 힘으로 빠른 기간에 끝내도록 하기 위한 작전과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현시기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토지개량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토지개량사업은 지력을 높이기 위한 자연 개조사업으로서 단위당 소출을 높여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토지개량의 대상은 산성토양, 령습한 땅, 썩은 논토양, 간석지토양을 비롯하여 소출이 높지 못한 논밭들이다.

개량한지 오랜 논과 밭, 비탈진 곳, 비물에 씻겨내려가 척박하고 산성화된 토지를 개량하여 지력을 높여야 한다.

지력을 높여야 토지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지력은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물과 영양물질을 보장할수 있는 토양의 능력, 토지의 질적상태를 표시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지력은 농작물이 땅속에 뿌리를 박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부드러운 흙속의 두께, 영양물질, 물기, 공기, 온도 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농작물의 수확고에 의하여 나타난다.

지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필지별로 토양의 조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흙갈이할데는 흙갈이를 하고 소석회를 칠데는 소석회도 치며 특히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는것과 함께 록비작물을 많이 심어야 한다.

현시기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토지를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토지는 인민의 공동의 소유로서 팔고 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보호, 토지건설사업

등 국토를 개발하고 토지를 개량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토지를 보호관리하는 사업은 이 사업에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경제기관 일군들이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과 함께 토지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할 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모든 도, 시, 군협동농장들에서는 부침땅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할데 대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정확히 알고 부침땅 한 평이라도 국가에 등록하고 리용하는 엄격한 질서와 규률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국가기관, 협동농장들에서 토지를 묵이거나 국가토지를 승인없이 침범하여 리용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도와 시, 군들에서 도시건물과 마을, 공장과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에 부침땅을 다치지 말고 산기슭이나 부침땅으로 적합하지 않은 땅을 리용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논밭가운데 있는 살림집과 공장건물들은 산기슭이나 비경지에 옮겨짓도록 하고 부침땅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척박한 땅에 건설하며 도시건설에서도 상점, 식당, 편의시설 같은것을 배치할 때에는 건물의 아래층에 배치하도록 하여 토지를 침범하는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건물이나 공장을 부침땅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토복구를 하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토지관리와 보호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국의 한치의 땅도 극력 아끼고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